

기독교무용예술의 공동선과 그 과제

이신영 한국외대 특임강의 교수

요 약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의 공공성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다각도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현실이며(김막미, 2019) 기독교가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에서 기독교무용예술의 목적성과 사명감을 재정검하고 문제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프랑스 신학자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 러시아 사상가 톨스토이(Lev Nikolayevich Tolstoy, 1828~1910) 미국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대중적 해설가이자 루터교 학자 진 에드워드 비스(Gene Edward Veith, Jr) 등등 울림과 영향력있는 학자들의 예술관을 통해 조명해보고 현 시대 기독교무용예술이 공동선을 위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할 노선을 살펴보았다.

인류는 개인의 자유나 행복보다는 공동체와 국가의 발전 및 사회적 질서를 유지한다는 미명하에 공공선, 공동선(모든 사람의 유익이나 이익 또는 모두의 선함)을 추구해왔다. 공동선(共同善:common good)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나 여러 사람에게 선(善)이 되는 것을 뜻하며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재산, 공동의 재산을 의미한다(박치완, 2014). 공동선의 지향은 예술에도 적용되며 기독교무용예술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이 즉 추구해야하는 공동선(the good of all)은 하나님께서는 성막 예술가인 브사렐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출 28:2)” 하라고 하신바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야하는 것에 있다. 모든 성원들은 이러한 공동선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좋은 삶의 의미, 좋은 예술의 추구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작품에 대한 고민이 기독교 예술이 가져야 할 공동선인 것이다.

존 칼빈은 ‘일반은사’와 ‘소명’의 개념을 통해 공동선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류의 공공선이 교회와 세상,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모두에게 차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고, ‘일반은총’은 전 세계의 공공선을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으며 예술도 다른 문화적 활동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소명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삶에 대한 모든 ‘소명’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직접 연관되며, 세속사회 속에서 신자의 문화적 사명은 소극적 의미에서 허용된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임을(김영한, 1996) 강조하였다. 톨스토이와 진 에드워드 비스는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을 규정하며 기독교예술이 선(善)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판적으로 제시하였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선과 악이 종교에 의해 정해지며 예술에

의해 전해지는 감정은 언제나 종교적 자각에 의해 평가되었고 성경의 사랑에 대한 감정을 전달하는 것, 민족 전체에서 공통된 자각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이 좋은 예술이라 하였다. 하지만 상류계급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상실하여 예술에서 얻어지는 개인적 쾌락이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의 척도가 되었다고 하였다. 진 에드워드 비스는 진리 자체에 무관심한 현대주의 후기상황에 있는 교회는 성경적 토대 위에서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위기의식을 지녀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예술에 대한 입장과 내용은 상이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말씀에 입각하여 현실의 전 삶의 영역에서 이웃과 사회를 향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있으며 선(善)을 위해 실천적 삶, 삶의 양식을 지향하였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예술은 이분법적인 사고하에 엘리트주의가 되어 실제적인 인간 삶에서 절연되고 가고 있는 현실에 있다. 무용예술계와 기독교무용 예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탐미주의, 개인주의, 교육기관 축소, 공동체의식 결여, 소명 있는 사역자의 부재 등등의 문제에 놓여있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선은 현재 세대 혹은 미래 세대의 인류 번영 중 하나만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우주 창조에서 역사의 종말까지, 더 정확히는 영원에서 영원까지도 포괄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성경의 공동선 가치도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세대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류 사회가 존재, 나눔, 절제를 추구하는 규모 있는 삶의 양식을 선택하는 것으로만 구체화 될 수 있다(송용원, 2020).

이러한 입장에서 기독교무용인들이 추구해야하는 공동선의 구체적 노력을 위해 3가지 측면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첫째, 고급예술을 추구하는 무용예술가를 위한 예술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즐기는 예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관람하는 무용예술에서 함께하는 기독교무용예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아뢰로부터 다른 모든 피조세계를 개발하고 보존하라는 문화명령의 수행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존재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있으며 어느 하나 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없으며 인간의 문화 형성은 공동의 사명이므로(Middleton & Waish, 2012)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술가, 무용수만 추는 예배가 아니라 회중들의 참여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듯 삶 속에 스며들어 많은 이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기독교무용인들의 소명을 달성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삶 속에서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관객을 위한 무용예술(선교무용), 무용을 위한 교육(지도자, 전공자배출), 교육을 위한 무용(시민과 사회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 치료적 가치) 등을 포괄하는 무용예술의 전 범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시도되고 있으나 주류문화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독창성과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신국원, 2014). 기독교 무용계도 같은 현실이다. 기독교예술 구성원 하나하나가 기독교적 공동선을 위해 자신과 이웃을 위해 부여된 소명과 과제를

잘 이행한다면 예배에서 기독교공동체 안과 밖에서 기독교무용예술이 줄 수 있는 독창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삶 속에서 모두가 함께 춤출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기독교무용예술, 공동선, 칼빈, 진 에드워드 비스, 톨스토이